

제5강의(8월3일)

'목동에서 왕으로'
사울과 다윗





נשאול
T

דוד

士
王
門

사무엘

1사무 1-24장

사울

1사무 9-31장

門 문 안에 두 왕

다윗

1사무 16-31장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던 판관시대가 사무엘 예언자로 마감된다. 사무엘도 예언자로 불리면서 또한 판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집트에서 시나이,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는 강력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판관시대를 거치면서 지도력이 떨어졌던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봉건체제의 필리스티아를 맞서기 위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제도를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청한다. 사무엘은 왕제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백성을 설득한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1사무 8,4-5)

그러나 백성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사무 8,19-20)라고 말하며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느님께 이 사실을 아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종교적 지도자이면서도 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늙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아를 브에르 세바에서 판관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자신의 잇속에만 치우치고 판결도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1사무 8,3) 백성은 실망을 했던 것이고 필리스티아는 늘 위협적이어서 불안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가지려는 원인이 되었다.



해양민족으로 알려진 필리스티아 민족은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람세스 신전의 한 부분에 조각되었다.



(Glasshouse Image 사진, Alamy;
<http://science-infuse.tistory.com/446>)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1사무 9,17)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이상 암나귀를 찾는데 연연하지 말라고 말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 있소.”(9,20)이라고 아울러 말한다.

사울은 겸손하게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씨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9,21)라고 말하며 사무엘의 제안을 사양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다> (10장)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1사무 10,1)라고 선언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라고 하고는 제비를 뽑게한다. 벤야민지파가 나오고 마트리 씨족이 뽑힌다. 그리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다. 그러나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 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라고 말한다.(10,24)



렘브란트의 '사울과 다윗'
위키미디어 공용 이미지

필리스티아인들이 병거 삼천, 기마 육천,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한다. 사울은 사무엘을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기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청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그 후에 사무엘이 왔다 마중 나간 사울을 향하여 왜 이런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문책한다. 사울은 병사들은 흩어져 사기가 떨어지고 급한 김에 하느님께 번제를 바쳤다고 말한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더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 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13,13-14)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1사무 16,11.13)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백발이 되었고 이제는 물러갈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하느님께서서 이집트에서부터 하신 일들을 설명하며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1사무 12,24-25)



<다윗이 다시 필리스티아로 망명하다>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가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만 찾다가 마침내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 육백 명과 함께 갓 임금,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1사무 27,1-2)

길보아 산에서의 전쟁

(1 사무 28,31)



사울은 30 세에 왕
이 되어
2년(1사무 13,1),
40여년을 다스렸다.
(사도13,21;
Flavius Josephus)

사울 왕가를 존중하고 사울 부자가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을 때까지도 다윗은 도피 생활 중이었다. 사울 왕가가 기울어지면서 다윗은 떠오르는 샛별이 된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어 왕이 되어서 사울의 후계자인 이스 보셋 임금과 대치를 이룬다.
(2사무 2,1-11)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맏아들은 아히노암에게서 난 암논, 둘째는 아비가일에게서 난 길압, 셋째는 그수르의 임금의 딸 마아카에게서 난 압살롬, 넷째는 하킷의 아들 아도니아, 다섯째는 아비탈에게서 난 스파트야, 여섯째는 에글라에게서 난 이트르암 (2사무 3,2-5)

<아브네르가 이스 보셋을 배반하고 요압에게 죽다>

사울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네르가 부하 스무 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자, 다윗은 아브네르와 그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요압은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와 죽인다.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 셈이다. (2사무 3,6-21)

<이스 보셋이 죽다>

사령관 아브네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다. 레갑과 바아나가 낮잠을 자는 이스 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바친다. 그러나 다윗은 상전을 배신한 그들을 죽이고 이스 보셋 머리를 거두어 아브네르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 (2사무 4,1-12)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한다. 다윗은 서른 다섯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일곱해,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 동안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2사무 5,1-5)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여부스족을 치려는 자는 지하 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쳐라." 여기에서 "다리저는 이와 눈먼 이는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 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쌓았다. (2사무 5,6-12)

<다윗이 계약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2사무 6,1-23)

다윗은 이스라엘 정병 삼만 명을 소집하고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난다. 그는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 앞에서 방백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비파와 수금과 손북과 요령과 자바라에 맞추어 춤추었다.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 제자리에 주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2사무 6,17-18)

<나탄의 예언> (2사무 7,1-17)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2사무 2-3)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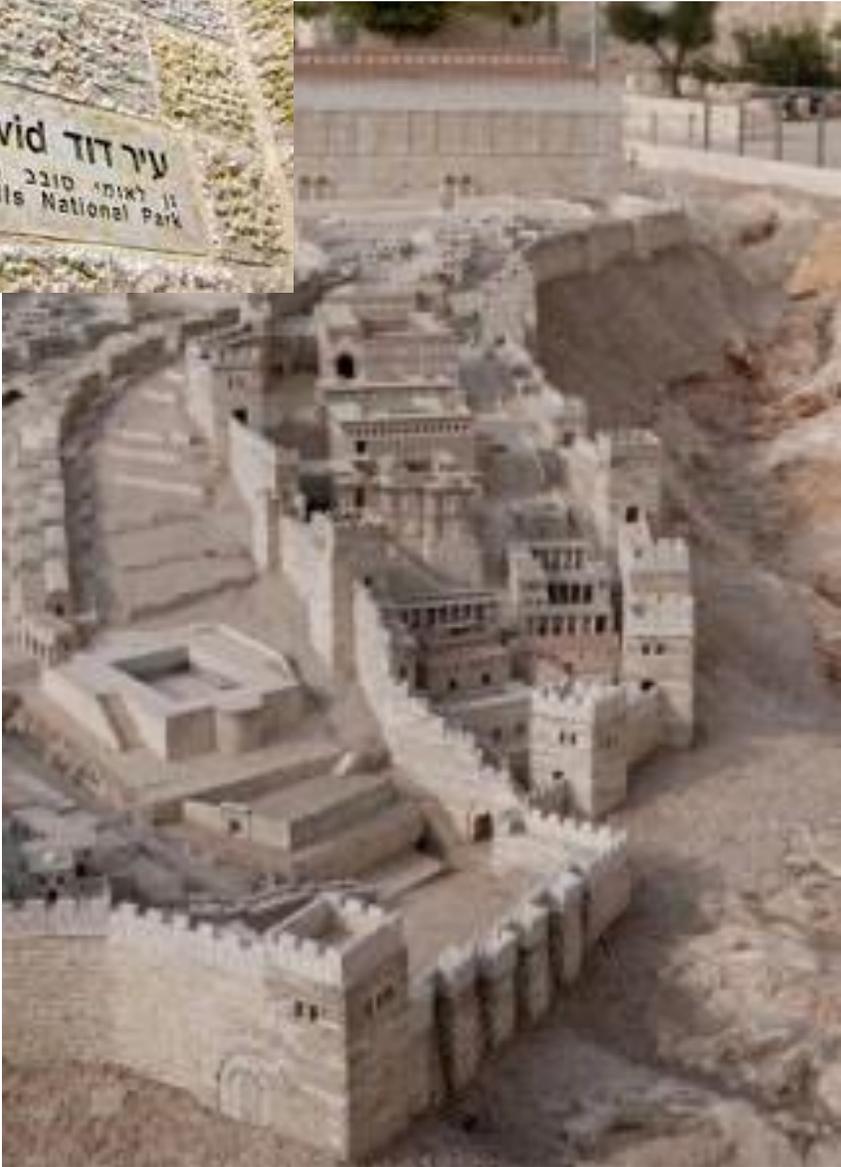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2)

다윗의 감사기도(2사무 7,18-29)

그러므로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당신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귀로 들어 온 그대로, 당신 말고는 다른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 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22-23)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다.>

그 뒤에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굴복시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메텍 암마를 빼앗았다. 2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잣다. 두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 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2사무 8,1-2)



<다윗의 관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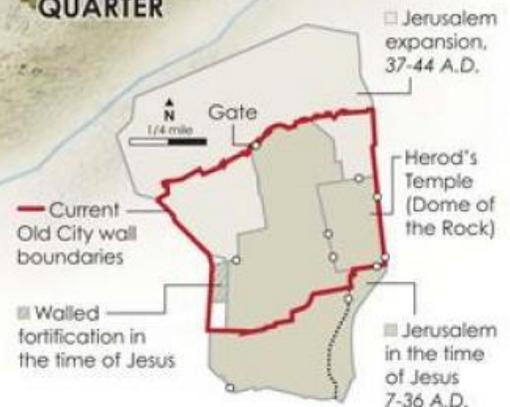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에게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였다. 츠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팻은 기록관이었다. 아히툽의 아들 차독과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히멜렉은 사제였고 스라야는 서기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크렛족과 펠렛족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2사무 8,15-18)



Ancient Jerusalem
Circa 63 A.D.

Jerusalem

By 34 B.C., under King Herod's rule, ancient Jerusalem went through major redevelopment, crowned with the rebuilding of the Second Temple and a bigger Temple Mount. In 66 AD, the Great Jewish Revolt challenged Roman rule over Jerusalem, resulting in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 fall of Jerusalem by 70 CE.





사울 왕가에 대한 다윗의 예우

다윗은 사울 왕가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 유다 왕가를 세운다. 그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긴다. 그리고 엘리사제 때 빼앗겼던 하느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긴다. 그는 사울 왕가에 대한 사무리를 보복이 아닌 배려로 사무리 짓고 새 왕조를 시작하는 성왕의 모습을 갖춘다.

사령관 아브네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다. 레갑과 바아나가 낮잠을 자는 이스 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바친다. 그러나 다윗은 상전을 배신한 그들을 죽이고 이스 보셋 머리를 거두어 아브네르의 무덤에 장사지낸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한다. 다윗은 서른 다섯에 임금이 되어 마흔 해 동안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일곱해, 예루살렘에서 서른 세 해 동안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 세바를 차지하다> 2사무 11.1-27)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야의 아내를 불러다가 정을 통하고 돌려 보낸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만다.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불러 아내의 임신을 무마하려고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한다. 그러나 전장의 있는 부하들을 생각하여 우리야는 집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전쟁이 가장 심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게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애도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궁으로 불러들여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한다. 이것이 하느님 눈에 거슬렸다. (11,26-27)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그가 밧 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시편

51,1-5)

하느님께서 나탄 예언자를 통하여 다윗을 꾸짖는다. '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태어나다> 12,24-25

다윗은 자기 아내 밧 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밧 세바가 아들을 낳자 다윗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사무 12,24)

헤브론에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은 이즈르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암논이고, 둘째는 카르멜 여자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다니엘이다. 셋째는 그수르 임금 탈마이의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고, 넷째는 하깃의 아들 아도니야이다.(1역대 3,1-2)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그 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들을 마련하고, 자기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쏜 명이나 거느렸다. (2사무 15,1)

압살롬은 임금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사무 15,6)

네 해가 지나자 압살롬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한 서원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이 종은 아람의 그수르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임금이 그에게 “평안히 떠나라.” 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떠났다. (2사무 15,7-9)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밀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였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시오.” 예루살렘에서는 이백 명이 초청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떠났는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을 뿐 아무 영문도 몰랐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고문인 길로 사람 아히토펠도 길로 성읍에서 불러내었다. 그때 그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란 세력이 점차 커지고 압살롬 편이 되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다. (2사무 15,10-12)

다윗이 요르단으로 달아나다

전령 하나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어서 달아납시다.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요. 서둘러 떠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서둘러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칼날로 이 도성을 칠 것이요.”

다윗은 올리브 고개를 오르며 울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계속 올라갔다. 다윗은 “아히토펬이 압살롬의 반란 세력에 끼여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제발 아히토펬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2사무 15,30-31)

다윗이 하느님께 예배드리시는 산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에렉 사람 후사이가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다윗에게 마주 왔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뿐이오.” (15,33)



그리하여 다윗의 벗 후사이는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2사무 15, 37)

<다윗과 시므이>

다윗 임금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울 집안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그는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온 백성과 모든 용사가 임금 좌우에 있는데도, 그는 다윗과 다윗 임금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시므이는 이렇게 말하며 저주하였다. “꺼져라, 꺼져! 이 살인자야, 이 무뢰한아! 사울의 왕위를 차지한 너에게 주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시고, 그 왕위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너는 살인자다. 이제 재앙이 너에게 닥쳤구나.”

그때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 죽은 개가 어찌 감히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저주합니까?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임금은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소? 주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어 저자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가 '어찌하여 네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겠소?"(2사무 16,8-9)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모든 신하에게 일렀다. "내 배 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이 벤야민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행여 주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시고, 오늘 내리시는 저주를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소?" (2사무 16,11-12)

압살롬이 싸움에 지다

임금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분부하였다. “나를 보아서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다루어 주시오.” 임금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장수에게 분부하는 것을 군사들도 다 들었다. (2사무 18,5)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그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다. 그 노새가 큰 향엽나무의 얽힌 가지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향엽나무에 휘감기면서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되고, 타고 가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2사무 18,9)

그러나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한 뒤에, 표창 셋을 손에 집어 들고, 향엽나무에 매달린 채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병인 젊은이 열 명이 둘러싸서 압살롬을 내리쳐 죽였다. (2사무 18,14-15)



예루살렘 올리브 산, 키드론 계곡에 위치한 3000년 역사를 지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 묘지 (https://www.123rf.com/photo_24220692_Stock Photo)

사무엘 예언자도 우려했던 정치의 결말은 골육상잔, 자식이 부모를 향해 칼을 겨누는 상상조차 힘든 드라마로 끝납니다. 성왕이던 다윗도 가정 교육에는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여러 부인들게서 난수를 셀 수 없는 자녀들이 결국 부모의 바람으로 향하지 못하고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가다가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도 다윗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하느님께로 향한 성실함이 복수가 아닌 구원의 역사의 흐름으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의 참 의미를 새겨줍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22,2)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
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22,2)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22,3)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셋거리, 백성의 조롱거리.(22,7)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
쭉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뱉니다.(22,8)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배 속
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22,11)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
쉬울 것 없어
라.(22,1)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22,1)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
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22,2)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22,3)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23,4)